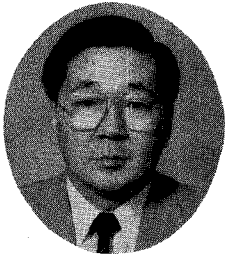


## “물에 대한 UN 총회”-제16차 ICID 총회 및 제47차 집행위원회에 참가 하고서...



김 대 년

KCID 사무국장  
농진공 농어촌연구원 부장

**국** 제관개배수위원회의 총회나 집행위원회는 통상적으로 보아 주최국의 국가원수 또는 대행이 개회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할 정도로 비중있는 국제회의이다. 분쟁이 끊이지 않는 중동지역 국가의 특별한 사정 때문이었던지 이번 카이로에서 개최된 제16차 총회와 제47차 집행위원회에서는 주최국의 국가수반이 직접 참석하지 않고 총리가 대신 참석하긴 하였으나, 고대 문명의 발상지인 나일강변에서 이 회의가 열리게 된 것은 참으로 뜻 깊은 일이 아닌가 여겨진다.

지난 9월 15부터 9월 22일까지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서 열린 이 회의에는 86개국의 회원국 가운데 53개국으로부터의 900여명의 대표들이 참석하였으며, 우리 한국관개배수위원회에서는 농진공의

이근모 본부장을 단장으로, 경북대의 서승덕 교수, 서울대의 권순국 교수, 충남대의 김태철 교수, 안성대의 이남호 교수, 건국대의 김선주 교수, 농림부의 허유만 과장과 이봉훈 사무관, 농진공의 박상현 박사, 어대수 박사, 그리고 필자 등 11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이 회의에 참석하였고, 농지개량조합연합회에서도 유근학 회장(ICID 부회장), 김주창 연구위원 그리고 유갑중 비서실장, 유혁우 처장이 참석하였다.

총회는 매 3년마다, 집행위원회는 매년, 각 회원국을 돌아가면서 열리는 회의이다. 우리 KCID에서는 1993년 화란 총회시 조홍래 회장께서 직접 이 회의에 참석하여 2001년 회의의 한국유치 뜻을 이미 표명한 바가 있다. 또한 영농 형태가 서로 상이한

Asia-Africa 지역회의를 Asia와 Africa 지역으로 각각 분리하여 시행할 것을 동 회의에서 정식으로 제의하여 2001년 부터 이를 각각 분리 개최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제1차 아시아 지역회의도 집행위원회와 더불어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한편 우리의 제안인 국제회의 유치문제가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의 하나로 이것이 다른 나라도 아닌 미국과의 경합관계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당초 우리 대표단은 상당히 무거운 압박감속에 서울을 떠났다.

돌이켜 보면 1980년대 까지만 하여도 ICID의 회원국 수가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으며, 우리는 다만 ICID 부회장직 등에 대한 막연한 관심만 갖고 있었을 뿐, 국제회의를 한국에 유치한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였다. 회의 개최지는 당연히 유럽이나 미주지역을 맴돌면서 개최되기 일수였고, 회의 개최지 결정이 유치차원의 문제로까지 제기되기도 않았다. 대개는 회의 유치의사를 표명하기만 하면 그대로 수용되어 결정되곤 하였던 것이다.

1992년 세계정상들이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에 모여서 지구를 환경오염으로부터 보호하자는 27개 항의 리우환경선언을 채택한 것을 계기로, 환경보전 문제가 세계적인 주요 공통 관심사가 되었다. UN, UNDP, World Bank 등 국제기구들도 물문제를 다루는 ICID의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으며, NGO로서의 ICID의 위상도 급격히 부상하게 되었다. 회원국 수도 점점 증가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국제회의 유치를 위한 회원국들간의 경쟁도 자연히 치열해지게 된 것이다.

우리 대표단 일행이 카이로 국제공항에 도착한 것은 9월 15일 아침 6시. 오전 9시부터 공식 일정이 시작되기 때문에 호텔에 도착하여 Check-in 할 시간의 여유도 없이 가방만 호텔로비에 풀어 놓은 채 대표단 일행은 곧 바로 회의장으로 달려 갔다.

아침 9시부터 시작되는 분과위 회의에 참석할 대표들은 곧바로 분과위 회의장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대표들은 조직위원회와 접촉하여 준비해 간 KCID 홍보물 전시작업에 매달렸다. 전시 스탠드를 예약

한 나라는 한국 밖에 없는 듯, 회의 등록장 정면에 우리만이 홍보물을 전시하고 그 옆에는 준비하여 간 홍보책자, 태극선 부채, 한국의 신랑신부를 상징하는 인형 마스크트 등을 Free Pick-Up 하도록 진열하여 놓았다. 우선 분위기를 잡는데는 크게 성공한 느낌이었으며, 참석자들이 등록을 마치면 곧 바로 우리 홍보전시물을 둘러보도록 자리잡고 있어 모든 나라 대표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 홍보물 전시와 관련하여 특히 인상적인 일은 월남국의 농업수자원성 Vu Trong Hong 차관과 지난 3월 “세계 물의 날” 국제 심포지엄에 초청받아 참석하였던 국제협력 부국장 Mr. Dao Trong Tu가 찾아와서 자기의 모습이 들어 있는 한-월 양국 관개배수위원회간의 기술협력 비망록 서명 사진을 보고 기뻐하던 모습이었다.

먼저 유치작전계획의 일환으로 사무총장과의 접촉을 시도 하였다. 분위기를 우선 먼저 읽어야 하기 때문에 필자는 이근모 단장을 수행하여 ICID 사무총장 Dr. Chitale 방으로 찾아 갔다. 그의 반응은 매우 외교적이었다. 이 문제는 ICID의 사무국이 직접

끼어들기가 어려운 민감한 문제이니 KCID 측에서 미국측과 직접 접촉하여 양보를 유도하여 보라는 이야기였다. 이에 따라 우리는 미국측이 스스로 유치신청을 철회하도록 유도 작전을 구사하면서, 최악의 경우 집행위원회에서 표결로 승부를 가린다는 전략을 세우고 각자 맡은 담당 국가의 대표들을 만나 그들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데 온 힘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먼저 미국측 대표를 만났다. 미국측 대표는 미국관개 배수위원회로부터 유치신청의 철회권한을 위임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치신청을 철회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는 완곡한 양보 거부 의사를 밝혔다. 여러 회원국 대표들과의 접촉을 마치고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어느 정도 생길 무렵, 우리는 다시 한번 미국측 대표를 접촉하여 미국측의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미국측은 전혀 변화의 기미를 보여주지 않았다.

한-미 양측 대표의 유치신청에 대한 기조연설이 있고, 몇 사람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는 후 곧바로 표결이 시작되었다. 투표방식은 무기명 투표, 검토위원장으로는 일본의 원로 Nakahara씨가 지명되었다. 투표와 검토가 진

행되는 20여분 동안은 문자 그대로 긴장속의 정적, 드디어 의장이 표결 결과를 발표하였다. "Majority goes to Korea..." 만장하하는 박수소리, 짹짹... 순간 우리 대표단 모두는 상기된 모습으로 각국 대표들로부터의 축하와 수 세례를 받았고, 이어서 이근모 단장의 짹짹한 답사 코멘트가 있었다.

나중에 일본 대표를 통하여 표결 결과가 33 : 10으로 완승을 거둔 것을 알게 되었다.

순간 필자는 KCID가 짧은 기간에 도약의 단계를 뛰어넘어 이제는 국제적으로 성숙하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게 되었구나 하는 느낌을 문득 갖게 되었다. 국제회의를 한국에서 유치하여 얻을 수 있는 소득은 과연 무엇인가? 더러는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 사람도 없지 않겠지만 이러한 국제회의를 우리 한국에서 개최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유형 무형의 효과는 대단하리라고 생각된다. 농어촌용수의 개발과 관리, 홍수조절, 관개 배수, 환경보전 등 농업토목 분야에 대한 기술과 정보의 국제적인 교환으로 우리의 기술력 도약은 물론 세계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 것이다. 우리기술의 대외홍보로 이 분야의 건설, 기술용역 및 관련 기자재 수출 기반조성에 기여하고, 나아가서 관광수입 증대와 아울러 관광수출 저변확대 또한 기대되는 효과라고 생각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유형적인 기대효과 보다는 이러한 국제회의를 주최하게 되면 국제사회에서의 자신감과, 그동안 국제적인 모임에 나가서 보인 수동적이고 폐쇄적인 행동이 적극적이고 개방적으로 바뀌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무형적인 사실일 것이다.

한편 우리의 2001년도 국제회의의 한국 유치에는 많은 나라들로부터의 우호적인 협조가 있었다. 그중에서도 일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대만 등 아시아권 국가들의 도움은 인상적인 것이었다.

필자가 인니 대표단들과 회의장 로비에서 한담을 주고받는 사이에, 일본의 원로 대표인 Nakahara씨가 인도네시아 수석대표에게 다가와서 귀엣말을 주고 받는 것을 보았는데, 2001회의 주최국 결정에 한국을 지원하라는 이야기를 던져주고 갔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일본대표들은 회의 휴식시간 마다 휴게실을 돌아 다니면서 친분이 있는 각국 대표들과 접촉하여 한국 지원을 당부하고 다닐 정도로 우리에게 아주 협조적이었다.

말레이시아 또한 큰 역할을 담당하여 주었다. 2001년 회의 개최국 결정에 관한 안건이 상정 되자마자 의사진행발언을 얻어 논리정연하게 한국 지지 발언을 하여 회의장 분위기를 한국쪽으로 기울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물론 이는 우리와 사전교감이 이루어졌기 때문이긴 하지만 말레이시아 대표는 우리가 이야기한 논리에 더해서 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모두 한국을 지지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논리로 미국측을 압박하는 지원 발언을 하였다.

인니 역시 우리와의 오랜 친분관계와 인도네시아가 '98년 회의의 Bali유치 당시 우리와의 경합관계에 있었으나 우리가 흔쾌히 물려서서 인도네시아를 지지하여 준 관계로 "It's our turn!"이라는 말로 우리를 적극 밀어 주었다. 인니는 World Bank, ADB, OECF, EC 등 다자간 협력기구는 물론, 화란, 캐나다, 일본 등 양자간 협력(Bilateral Cooperation) 기구로 부터의

세계 제1의 차관 고액국이며, 세계에서 가장 큰 기술용역시장이기 때문에 세계 유수국가들의 용역업체들이 들끓고 있는 나라이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대표들은 이들 국가들의 대표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이들 국가 대표들에게 우리를 밀어 주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벌였다.

우리는 정말로 큰 일을 해냈다. 이 모든 결과는 조흥래 농진공 사장께서 KCID 회장으로 취임한 후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KCID를 성장시키고 이를 직간접적 또는 원격으로 조정하여 준데 따른 성과품이라고 보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각종 정기·비정기 간행물 발간과 이의 국제 교류, 해마다 "세계 물의 날"을 즈음하여 시행한 국제규모의 심포지엄 개최, ICID 총회 참석으로 KCID의 ICID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표시와 참여, 월남국 관개배수위원회에 대한 지원 등으로 얻은 몇 십배에 달하는 KCID의 위상제고효과 등은 이번 대표단의 현지활동이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만든 환경조성의 결정적인 요인들이었다고 생각된다.

이제 2001년 국제 회의유치와 더불어 시행해야 할 기술세미나의 주제 및 부제 선정, 논문투고 안내, 회의장 선정, 현장견학 코스 선정 및 준비, 홍보출판물 발간, ICID 사무국과의 협조 문제, 재정계획 수립문제 등 수많은 일들이 당면 과제로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우리 경제의 외형고도 상당히 성장 하였으니 만큼 우리도 이제는 각 계, 각 분야가 국제무대에 나가 세계경제에서 우리경제가 차지하는 지분만큼 우리의 발언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2001 국제회의의 성공적인 수행과 더불어 우리의 원로중에서 ICID 회장, 부회장 등이 배출되어 우리 KCID가 세계의 관개배수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그 날을 기대해 본다.